

“KEPIC 개발 경험” 중국에 소개되다

4월 26일 북경 영흥 가든 호텔 에서 열려

김남하 | KEPIC 화력발전기계 전문위원장
(namakim@chol.com)

중국은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설비를 40GW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30기 이상의 신규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임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지난날 우리가 원전 건설에서 경험했듯이, 중국도 기자재의 국산화 비율을 얼마큼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되어있다. 이번 세미나는 中國機械工業聯合會 隋永濱 회장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의 주) 三信 金宗培회장이 전폭 지원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 삼신은 원자력급 밸브를 국산화하여 국내 원전에 공급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중국의 링하오 원자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의 원자력급 밸브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프랑스의 원자력급 밸브 업체가 독점 공급하던 관행을 제치고 따낸 계약이어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자재 공급자의 중국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세미나는 이 중훈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韓國核電自主化背景及標準, 規範的發展?程(Background of Korean NPP Localization and Codes & Standards Development)”,

이 창건 KEPIC 위원장의 “韓國電力工業規範介紹(Introduction to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김 남하 KEPIC 화력발전기계 위원장의 “韓國, 美國和法國的核電標準比較(Comparison of Nuclear Standards among Korea, U.S. and France)”, 그리고 주)삼신 박 성갑 부사장의 “ASME “N”類?爲的取得及核電閥門的制造及檢測規範(Nuclear Valve Manufacturer as an ASME “N” Type Certificate Holder)”로 진행되었다.

1일의 세미나 참가비가 1,600元 (약 20만원)인데도 신청자가 너무 많아 “선착순 150명으로 한정하였다”고 한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중국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 대부분이 프랑스의 원자력 기자재 기술 기준(RCC-M Code)을 적용하였는데 중국은 앞으로 원자력 단일 기술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을 미국 방법으로 하느냐 프랑스 방법으로 하느냐를 놓고 망설이게 되었고, 양 진영의 참여한 대립사이에서 해결방안을 내놓아야할 정부와 기계공업연합회가, 같은 길을 걸어간, 한국의 KEPIC 개발 경위를 참작키 위해 세미나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보였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황 리(여) 중대기술장비협조처 처장이하 정부관계자도 참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질문도 가장 많이 하는 등 정부차원의 의지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은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은 정부가 하지만 그에 대한 시행은 각 기술 연합회가 중심이 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中國機械工業 聯合會가 주관하는 원자력 기자재 표준개발에 KEPIC 개발 경험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